

일본의 동아시아연구 현황

유정아(돗토리대학 지역학부)

I. 『사학잡지』를 통해 본 연구현황

일본에서 동아시아연구를 개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서로 매년 6월에 발간되는 『사학잡지』의 「회고와 전망」이 있다. 일본에서 전년도에 발간된 논문과 저서를 테마별로 정리 소개하고 있어 전체적인 연구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본 발표는 최근 4년 동안 출판된 사학 잡지의 회고와 전망을 검토하여 명청 시대를 중심으로 일본학계의 동아시아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의 일본학계의 동향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의 명청시대 연구는 명초부터 아편전쟁 전후까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는 「근세」에 해당하는 시기로 「전통 중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시기이자, 근대화 과정을 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전통 중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중국과 주변 지역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즉 동아시아의 전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 연구 방향은 근대 서구모델의 상대화라는 커다란 문제 의식하에서 동아시아의 「전통」과 「제도」를 이해하려는 연구에서 동아시아의 「전통」의 특징을 있는 그대로 내부적으로 이해하려는 연구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2014년의 회고와 전망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테마로 「지역사회」라는 항목이 있다. 일본의 명청사연구에서 1990년대 이래 새로운 연구 방법론으로 대두된 지역사회론이 하나의 연구 영역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¹⁾ 2014년 지역사회에서 소개된 연구들은 명대 강남델타지역, 청대 소주 주변지역, 청초 강남지역에서 발생한 종족사회와 지역사회의 분쟁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다.²⁾ 한편 「연극」이라는 항목에는 국가행사로써 연극문화에 주목한 연구성과들이 단행본으로 출판되어 이를 소개하고 있다.³⁾ 또한 청대 궁정연극이 청제국의 다양성과 그 권위를 가시화하는 문화적인 시위였음을 밝힌 논문,⁴⁾ 주변 국가의 조공사절과 연극의 관련성을 밝힌 논문,⁵⁾ 외번 몽골지역에서의 청조 궁정 연극이 수용되는 과정을 다룬 논문⁶⁾ 등이 출판되었다. 이외에도 청대 연극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⁷⁾이 발표되었다는 점은 2014년 명청사연구의 특징이다. 한편 연구성과가 가장 많은 「대외관계」에는 조선과 주변 지역간의 관계,⁸⁾ 해역세계와 관련된 연구,⁹⁾ 조선과 유구의 표착과 관련된 연구,¹⁰⁾ 화인상인의

1) 岸本美緒 (1999) 『明清交替と江南社会』, 東京大学出版会.

2) 濱島敦俊 (2014) 「明代江南は「宗族社会」なりしや」 『中国近世の規範と秩序』; 亀岡敦子 (2014) 「明清時代の福建漳州府と陳元光遠征随伴伝承」 『史朋』47; 陳永福 (2014) 「清初における文社活動展開の一側面」 『歴史学研究』 915

3) 磯部彰編 (2014) 『清朝宮廷演劇文化の研究』勉誠出版.

4) 杉山清彦 (2014) 「大清グルンの支配秩序と宮廷演劇」 『清朝宮廷演劇文化の研究』勉誠出版.

5) 金文京 (2014) 「朝鮮燕行使が見た清朝の演劇」 『清朝宮廷演劇文化の研究』勉誠出版.

6) 中見立夫 (2014) 「北京への途」 『清朝宮廷演劇文化の研究』勉誠出版.

7) 柴崎公美子 (2014) 「清朝宮廷演劇における「薛丁山」物語の受容」 『日本アジア研究』11; 大塚秀高 (2014) 「宋太祖趙匡胤をめぐる清朝宮廷連台戯」 『日本アジア研究』11; 村上正和 (2014) 『清代中国における演劇と社会』山川出版社.

8) 荷見守義 (2014) 『明代遼東と朝鮮』汲古書院; 辻大和 「一七世紀初頭朝鮮の対明貿易」 『東洋学報』96-1; 辻大和 「一七世紀朝鮮・明間における海路使行と貿易の展開」 『朝鮮史研究会論文集』521; 鈴木開 「朝鮮丁卯胡乱考」 『史学雑誌』123-8; 山本進 『大清帝国と朝鮮經濟』九大出版会.

9) 〈東アジア海域に漕ぎだす〉라는 시리즈는 일본에서 해역 세계를 다룬 대표적인 시리즈로 2013년에 제

정보와 나가사키¹¹⁾ 등의 연구가 있다. 서북지역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청조와 티베트관계, 청조와 중앙아시아 지역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¹²⁾ 한편 「대외관계총론」에서는 전근대의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조공-책봉체제라는 단순한 구조로 설명될 수 없다는 비판이 학계에서 일반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전통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관한 종래의 연구가 서양 모델의 상대화에 몰두해서 실제 본래의 모습을 왜곡시켰다는 점이 비판을 받으면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관계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5년의 회고와 전망에서 주목할만한 연구는 「청대의 정치」에서 팔기제도에 관한 2편의 연구이다. 「북학다민족국가」로서의 청제국의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¹⁴⁾와 이를 반박한 연구¹⁵⁾이다. 팔기제도가 집권적인냐 분권적인냐 하는 문제를 두고 이해의 차이가 나타난다. 명청을 한족 왕조로써 연속적으로 인식하느냐, 명과 청을 다른 전혀 다른 국가구조로 이해하느냐는 청조 국가론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분야는 제국사 연구와 연결되어 주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문사료 외에 만주어, 몽골어, 티베트어사료 등을 이용한 실증적인 연구성과들이 축적되어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관계와 무역」에서는 특히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조선에 주목한 연구들을 다수 소개하고 있다.¹⁶⁾ 조선을 중심으로 한 일본과 중국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면서 조공-책봉 교린관계라는 모델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었고,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다. 「해역세계」에서는 동인도회사의 진출과 현지 해적에 관한 연구서¹⁷⁾에 海商·왜구·해적에 관련된 다양한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¹⁸⁾ 또한 최초의 포르투갈계 동아시아 지도¹⁹⁾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2013년 〈東アジアを漕ぎだす〉시리즈가 출판된 이래 해역세계의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구 내용도 다양해지고 연구자도 많아지는 등 주목받는 분야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대조적으로 「내륙세계」에서는 왕조 주도형 이주와 민간 주도형 이주가 상승효과를 낸 운남지역 이주,²⁰⁾ 티베트 및 청해 지역과 청조의 관계,²¹⁾ 청과

1권이 처음 발행되었다. 2014년에는 제4권『東アジアのなかの五山文化』 제5권『訓読から見なおす東アジア』 제6권『海がはぐくむ日本文化』가 출판되어 시리즈가 완결되었다. 이외에 일본에서 해역 세계에 관한 연구서로 桃木至朗編(2008)『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岩波書店; 上田信(2005)『海と帝国: 明清時代』講談社가 있다.

- 10) 岑玲(2014)「清朝中国に漂着した琉球船乗員の言語接触」『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7; 松浦章「朝鮮国漂着中国船の筆談記録にみる諸相」『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紀要』47.
- 11) 郭陽(2014)「唐船風説書に見る鄭經の「西征」」『九州大学東洋史論集』42.
- 12) 多久孝一郎(2014)「第一次熱茶使節と清朝・ジュン＝ガル講和」『社会文化史学』57; 小沼孝博「ヌサン使節の派遣」『アジア文化研究』14; 真田安「乾隆二五年カシュガル反乱」『中央大学アジア史研究』38; 村上信明「乾隆四〇・五〇年代の庫倫辦事大臣に関する一考察」『社会文化史学』57.
- 13) 壇上寛(2013)『明代海禁＝朝貢システムと華夷秩序』京大学術出版会; 茂木敏夫「中華世界秩序論の新段階」『東京女子大学紀要論集』65-1.
- 14) 杉山清彦(2015)『大清帝国の形成と八期制』名大出版会.
- 15) 谷井陽子(2015)『八期制度の研究』京大学術出版会.
- 16) 夫馬進(2015)『朝鮮燕行使と朝鮮通信使』名大出版社; 山本進「近世中朝貿易と青市」『朝鮮学報』234; 辻大和「朝鮮の対後金貿易政策」『朝鮮朝後期の社会と思想』勉誠出版; 鈴木開「『満文原檔』にみえる朝鮮国王の呼称」『朝鮮朝後期の社会と思想』勉誠出版; 辻大和「丙子の乱後朝鮮の対清貿易について」『内陸アジア研究』30; 木村可奈子「日本のキリスト教禁制による不審船転送要請と朝鮮の対清・対日関係」『史学時雑誌』124-1.
- 17) 東洋文庫編(2015)『東インド会社とアジアの海賊』勉誠出版.
- 18) 中島楽章(2015)「海商と海賊のあいだー徽州海商と後倭寇」『東アジア会社とアジア海賊』勉誠出版; バオラ・カランカ「中国沿岸の商業と海賊行為ー一六二〇〜一六四〇年」; 深瀬公一郎「屏風に描かれたオランダ東インド会社の活動」; 豊岡康史「『中国海賊』のイメージの系譜」.
- 19) 中島楽章(2015)「最初のポルトガル系東アジア図」『史淵』152.

외몽골·내몽골 지역의 관계,²²⁾ 청조와 중앙아시아와의 관계²³⁾등을 다룬 연구를 다수 소개되고 있다. 중국과 그 주변 지역에 관한 연구가 국제관계, 해역, 내륙지역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재정, 경제방면의 연구성과는 두드러지지 않은 점이 2015년 연구의 하나의 특징이다.

2016년 회고와 전망은 2015년에 이어 「해역세계」 「내륙세계」연구가 두드러진다. 청대 해적을 실마리로 사회, 경제, 국제관계를 분석한 연구,²⁴⁾ 회주 상인과 왜구와의 관계,²⁵⁾ 회주 상인과 포르투갈인의 밀무역,²⁶⁾ 강희雍正시대 나가사키무역의 실태를 분석한 연구²⁷⁾등, 바다를 통한 동아시아의 무역과 교류 및 서구 세력과의 관계등을 실증적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내륙세계」에서는 청대 번부지역(티베트, 몽골)과 중앙아시아 지역 간의 관계를 다룬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었다.²⁸⁾ 각 지역의 언어로 된 1차사료를 분석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청조와 주변 지역 간의 관계 특히 서북지역 간의 관계는 청조 측의 입장은 물론, 티베트·몽골·중앙아시아의 시각을 반영한 연구가 보편화되고 있다.

2017년 회고와 전망도 역시 해역 세계와 대외관계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대외관계·무역」에서는 명초 일본과의 관계,²⁹⁾ 명대 조선 조공사절의 문서,³⁰⁾ 병자호란 전후의 청과 조선 간의 관계,³¹⁾ 청조 표류민 송환체제,³²⁾ 청과 유구와의 관계³³⁾등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해역세계」에서는 왜구연구,³⁴⁾ 日明관계와 왜구,³⁵⁾ 청조와 베트남 국경 지역에서 활약한 왜구에 관한 연구³⁶⁾등, 왜구와 해적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내륙세계」에서는 청대 외번지역 즉 몽골, 티베트와 관련된 연구가 『만족사 연구』라는 잡지를 중심으로 다수 발표되었다.

20) 西川和孝 (2015) 『雲南中華世界の膨張』慶友社.

21) 野崎くるみ (2015) 「ダライラマ九世の選定からみる清朝」『社会文化史学』58; 岩田啓介 (2014) 「禁約青海十二事の成立」『満族史研究』13.

22) チョウルモンゴル (2015) 「清代外モンゴルにおけるトシェート・ハン部、サイン・ノヤン部間の牧地紛争処理」『東北アジア研究』19; 堀内香里 「清代後期ハルハ・モンゴルの旗内行政統治における印務処の機能について」『東北アジア研究』19; 蒙古勒呼 「乾隆期前半におけるチャハル八旗の裁判」『史観』173.

23) 小沼孝博 (2015) 「トルファン・オアシス社会の分断」『歴史と地理』686; 小沼孝博 「「異人」イメージの政治性」『東洋文化研究』17; 早川尚志 「明代東トルキスタンの交易路とその変遷」『ラーフィダーン』36.

24) 豊岡康史 (2016) 『海賊からみた清朝』藤原書店.

25) 熊遠報 (2016) 「徽州商人と倭寇」『中国一社会と文化』.

26) 中島榮章 (2016) 「胡椒と佛郎機」『東洋史研究』74-4.

27) 松浦章 (2016) 「康熙雍正時代における上海・寧波の沿海運航」『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9.

28) 伴真一朗 (2017) 「アルタン・ハーン以降のモンゴルのアムド進出とアムド・チベット土司のゲルク派への接近」『東洋学報』97-4; 岩田啓介 「雍正年間における清朝の青海モンゴル支配の実態」『東洋学報』98-1; 多久孝一郎 「清朝による第三次熬茶使節の許可・護送の方針」『史境』72; 黒田有誌 「一八世紀後半チベットの裁判における清朝の関与について」『東洋史苑』88; 王長青 「清代初期のモンゴル法のあり方とその適用」『言語・地域文化研究』22; 小沼孝博 「中央アジア・オアシスにおける政治権力と隊商交易」『東洋史研究』75-1.

29) 年旭 (2017) 「明初朝貢体制と日本の位置」『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10.

30) 辻大和 (2017) 「朝鮮の対明朝貢使節が携帯した文書」『韓国朝鮮文化研究』16.

31) 鈴木開 (2017) 「丙子の乱直前の朝清交渉について (一六三四-一六三六)」『駿台史学』159; 鈴木開 (2016) 「丙子の乱と朝清関係の成立」『史林』99-6.

32) 赤嶺守 (2017) 「朝鮮に漂着した琉球漂流民の送還について」『琉球アジア文化論集』3.

33) 王徴 (野村直美訳) (2017) 「清代琉球使節の入京途中の遅延についての一考察」『沖縄史料編集紀要』40.

34) 山崎岳 (2017) 「倭寇とはなにか」『歴史と地理』701.

35) 須田牧子 (2017) 「海禁政策と倭寇」『歴史と地理』707.

36) 豊岡康史 (2017) 「清朝・ベトナム国境と越境する海賊」『歴史学研究』963.

이상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의 회고와 전망을 살펴보면, 1990년대 이래 명청사 연구를 주도해 온 지역사회 연구를 제치고 국제관계·해역세계·내륙세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관계 측면에서는 서구의 조약체제와 다른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 질서를 모델화한 조공 책봉체제론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즉 조공 책봉체제론이 오히려 전통 중국의 다양한 대외관계, 국제관계의 실태를 분석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었다는 인식이다. 조공 책봉체제론을 비판하고 이와 일정한 거리를 둔 실증적인 연구가 다수 등장하였다.³⁷⁾

한편 내륙세계에 관한 연구들은 새로운 당안사료의 발굴, 만주어, 몽골어, 티베트어 등으로 된 1차 사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청제국의 구조, 국가론, 티베트·몽골·중앙아시아와의 관계를 다양한 시각에서 밝혔다. 청조가 만주족 왕조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티베트·몽골·중앙아시아에서 청조와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였는지를 다원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이로 인해 명청 시대 변부와 중앙아시아 연구자들은 한자 사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된 1차 사료를 분석해야 하는 부담감이 커졌다.³⁸⁾

해역 세계 연구는 서양 측 연구의 영향을 받아 종래의 대륙에 시점을 둔 동아시아사 인식에 대한 비판적인 움직임에서 시작되었다. 해역(바다)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 동아시아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동아시아사 像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명청사 뿐만 아니라 근대사 연구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³⁹⁾ 일본에서 해역 세계의 연구는 중국에서는 해역 세계를 해양(海洋)이라 한다. 최근 廈門大學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움을 통해 중국의 연구 동향도 살펴볼 수 있다.⁴⁰⁾

II. 글로벌 히스토리론

한편 일본에서도 국제 역사학계 연구의 영향을 받아 글로벌 히스토리(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⁴¹⁾라는 역사학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일본 명청사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인 기시모토 미오(岸本美緒)의 논평을 중심으로 소개하겠다.⁴²⁾

글로벌 히스토리는 일국사적 틀을 벗어난 넓은 시야를 지니고 유럽 중심주의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일본학계에서 이를 새로운 연구 방법론으로 표방하는 움직임에 대해 기시모토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⁴³⁾ 기시모토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글로벌 히스토리는

37) 최근의 연구로 岡本隆司・箱田恵子 (2019) 『ハンドブック近代中国外交史：明清交替から満洲事変まで』ミネルヴァ書房가 있다.

38) 티베트사 연구에서 살펴보면, 石濱裕美子 (2001) 『チベット仏教世界の歴史的研究』東方書店이 가장 효시적인 연구라 하겠다. 이시하마씨는 티베트어, 몽골어, 만주어 사료를 망라적으로 분석하여 중화세계와는 다른 티베트 불교세계 안에 티베트, 몽골, 만주의 관계를 새롭게 제시했다. 한편 柳静我 (2004) 『駐蔵大臣』派遣前夜における清朝の対チベット政策—一七二〇～一七二七年を中心に— 『史学雑誌』113-12; 柳静我 (2012) 『一七二七年のチベット政変と清朝の介入』 『史学雑誌』121-9는 청조의 티베트 정책에 관해 만주어, 티베트어, 한문당안을 이용해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티베트 불교 세계라는 이념과 청조의 번부통치 모델을 상대화하고 현실정치 세계의 움직임을 검토하였다.

39) 村上衛 (2013) 『海の近代中国：福建人の活動とイギリス・清朝』名古屋大学出版会.

40) 廈門大學人文學院和中山大學歷史系主辦 “海洋與中國研究”國際學術研討會가 2019년 3월29일부터 4월1일까지 廈門大學에서 열렸다. 중국대륙은 물론 홍콩, 타이완, 일본 한국학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해양사에 관한 다양한 연구업적이 소개되었다.

41) 글로벌 히스토리 관련 대표적인 일본연구를 2편 소개하겠다. 水島司 (2010) 『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入門』山川出版社; 羽田正 (2011) 『新しい世界史へ—地球市民のための構想』岩波書店.

42) 岸本美緒 (2018) 『「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論」と「カリフォルニア学派」』『思想』1127.

43) 기시모토미오씨는 과거 岸本美緒 「アジアからの諸視角—「交錯」「対話」—」 『歴史学研究』676에서 『ア

유럽과 아시아를 비교 대상으로 놓고 유럽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을 전면적으로 강조한다. 잭 골드스톤에 의하면「캘리포니아 학파」에서는 19세기에 발생한 유럽과 아시아의 「大分岐」에 대해 두 문명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혹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스토리를 지탱하는 인식의 틀과 이러한 스토리를 누구를 향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 지하는 부분이다. 유럽의 우위성과 수동적인 존재로서의 비유럽지역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하에 비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 서술이 생겨난다. 즉 18세기까지 중국은 거대한 영토를 지니고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국제무역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대국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스토리는 강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 아시아의 선진성을 강조하는 연구의 배경에는 20세기 이후 중국의 대국화가 있다. 이는 既知의 결과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서양의 勃興」이라는 종래의 통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캘리포니아 학파는 미국의 중국사 연구가 유럽 중심주의에 빠져있다는 종래의 비판에 대해 이는 중국 사회가 정체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부정하는 것이지, 중국에 대한 유럽의 상대적인 선진성이라는 통설까지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기시모토는 포메랑즈⁴⁴⁾와 웅⁴⁵⁾의 연구에 대해 포메랑즈의 연구는 유럽우위론을 논박해야 한다는 목표에 너무 집착했다는 점, 시장의 선진도를 단순히 규제 자유에 두어 농민의 생존이라는 당시의 중요한 문제를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그 안일함을 지적하고 있다. 「신고전파 경제학에 있어서의 이상적인 시장」을 기준으로 중국 시장의 선진성을 주장하는 포메랑즈와 달리 일본의 논의는 신고전파적 시장관을 상대화하는 움직임이고 이는「유럽중심주의 비판」의 또 다른 시도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Ⅲ. 연구회소개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에는 村上衛준교수를 중심으로 “전환기 중국의 사회경제제도”라는 연구반이 있다. 이 연구반에서는 관습, 상식, 규범, 질서, 행동 양식등의 고유의 「제도」가 전환기(1980년대 이후, 청말 민국 시기, 명말 청초 시기)에 어떻게 유지, 변용되어 왔는가에 주목하였다. 연구 목적은 서양세계나 일본과는 다른 중국의 사회경제「제도」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어권에서 글로벌 히스토리연구가 비교사연구를 활성화 시켰지만, 사실 각 지역의 사회경제「제도」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청대 嘉慶 년간에 「維新」으로 불리는 정치 개혁의 실태와 그 영향에 대해 가경 4년(1799)를 기점으로 포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공동 연구가 있다.⁴⁶⁾ 이 공동 연구는 가경 년간의 개혁이 19세기 청조의 정책적 기조를 이루고, 중국 근세사와 근대사의 가교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가경 4년의 상유를 직영하는 작업을 통해 동시대의 문제의식을 파악하고 이에 의거하여 개혁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가경제 개혁에 대한 재검 가경제 개혁에 대한 재검토는 토는 청초가 전환기에 어떠한

『ジャから考える』시리즈에 대해 유럽중심주의를 상대화하기 위한 아시아 중심 연구에 비판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44) Kenneth Pomeranz, The Great Divergence: China, Europe,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日本語訳『大分岐—中国、ヨーロッパ、そして近代世界経済の形成』川北稔監訳、名古屋大学出版社、2015年.

45) R. Bin Wong, China Transformed : Historical Change and the Limits of European Experience, Ithaca and Londonm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46) 豊岡康史 (2015) 「嘉慶維新 (一七九九年) 再検討」 『信大史学』 40.

개혁을 추구하였는지를 밝힐 수 있는 재미있는 시도라 하겠다.

이처럼 일본의 연구는 모델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와 실증 중심의 연구가 공존하면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가는 동아시아 근세상을 동시대적 실체에 근접하게 구축해 가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단순히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상대화를 통해 아시아중심주의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뛰어넘어 각각의 지역의 질서관, 가치관, 세계관, 경제관 등을 동시대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욱 보편적인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